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269>

JCCT 2023-7-32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디지털인문학적 강의 운영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Digital humanities lecture on Marcel Proust's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민진영*

Jinyoung MIN*

요약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탄생 150주년을 맞는 2021년과 서거 100주년을 맞는 2022년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었다. 필자는 난해하다고 알려진 이 7권의 대하소설을 국내의 프랑스문학 전공 학생들에게 잘 접근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인문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필자는 학생들을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시각화자료를 통해 작품이해의 실마리를 찾도록 이끌었다. 워드클라우드로 작품에 나타나는 주요 등장인물과 장소를 뽑아보고, 빅카인즈와 텍스톰이라는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의 프루스트에 대한 인지도를 검색하였다. 학생들은 디지털인문학의 방법론을 통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해 난해하다고 하여 포기하기보다는 조금씩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진술했다. 프랑스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프랑스문학의 이해를 넓혀가는 방법을 찾아가는데 있어 빅데이터 분석과 디지털인문학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교수법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디지털인문학, 빅데이터, 워드클라우드, 빅카인즈, 텍스톰

Abstract In 2021, the 150th anniversary of Proust's birth, and in 2022, the 100th anniversary of his death, the interest in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increased. We took advantage of a digital humanities approach to make these seven novels known as difficult easily accessible to French literature major Korean students. We let the students analyze using the analyzing tools for the big data and find some clues to understand the works through the visualized data. We picked out the main characters and places that appear in his works with Wordcloud, and checked the awareness of Proust in domestic and foreign through the various sites to analyze the big data, such as Big Kinds and Textom. Through the methodology of digital humanities, the students commented that they have gradually enlarged their understanding breadth for Proust's 『In Search of Lost Time』 rather than giving up it as difficult. This study confirmed that applying the big data analysis and digital humanities is an appropriate teaching method in finding ways for the student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French literature.

Key words : Marcel Proust,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In Search of Lost Time, Digital Humanities, Big Data, Wordcloud, Bigkinds, Textom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3년 5월 15일, 수정완료일: 2023년 6월 5일
계재확정일: 2023년 7월 5일

Received: May 15, 2023 / Revised: June 5, 2023

Accepted: July 5, 2023

*Corresponding Author: sahara@jnu.ac.kr

Dept. of French linguistics and litera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 서 론

20세기 프랑스문학의 대표 작가들 중 한 명인 마르셀 프루스트 Marcel Proust는 2021년에 탄생 150주년을 맞이하였고, 2022년은 서거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의 대표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는 프랑스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영미문학계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폭넓게 사랑받는 작품은 아니다. 세계의 많은 비평가들과 철학자들이 프루스트를 제임스 조이스 James Joyce, 프란츠 카프카 Frantz Kafka와 함께 20세기의 대표적인 세계문학 작가라고 많은 평론에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문학비평의 세계에서나 대중문학 세계에서든 폭넓게 사랑받지는 못했다. 민음사에서 최근 10여 년에 걸쳐 새로운 번역본이 완역되었는데, 프루스트의 탄생 150주년과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된 여러 번역서와 연구서와 함께 인기가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프루스트를 어려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원서로 2,400여 페이지인 데다가 최근에 완역된 한글번역본도 전체 13권까지 이르고 있어서 양적으로도 부담될 뿐만 아니라 길게 늘어지는 만연체의 문체 때문에 학생들은 독서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21세기는 디지털전환 시대라 하여 많은 디지털 도구가 대학교의 전공수업에도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 현재 인문학 연구는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데이터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문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대학교육에서 고전 해독과 번역에 있어서 다양한 디지털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디지털인문학 시대 분위기에 발맞추어 본 연구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대학강의에서 활용해 본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전공학생들에게 난해하다고 이름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디지털 데이터 분석에서 찾아보게 함으로써 작품이해의 깊이를 넓혀가게 하고자 한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분석하기 위해 어휘빈도 분석, 주제어 및 연관어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과

텍스트마이닝, 그리고 국내외 인지도에 대한 트랜드분석 같은 방법론을 적용해 볼 것이다.

II. 데이터 분석에 의한 작품 접근의 선행 사례 분석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는 전체 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권의 제목은 1권 『스완네 집 쪽으로 Du côté de chez Swann』, 2권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À l'ombre des jeunes filles en fleurs』, 3권 『게르망트 쪽 Le Côté de Guermantes』, 4권 『소돔과 고모라 Sodome et Gomorrhe』, 5권 『간힌 여인 La Prisonnière』, 6권 『사라진 알베르틴 Albertine disparue』, 7권 『되찾은 시간 Le Temps retrouvé』이다. 갈리마르 Gallimard 출판사의 카르토(Quarto) 출판본을 기준으로 2,399페이지에 달한다[1].

수강생들에게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작품 접근을 실습해보기에 앞서 과거 데이터에 의한 작품 분석 사례를 소개해줌으로써 데이터 분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보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주 반 드 벤 Inge Van de Ven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세대에게 프루스트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논하고 있고[6], 제프리 드루인 Jeffrey Drouin의 연구에서는 프루스트와 관련된 아카이브들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를 시도하고 있는 시각화 자료[4]와 함께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더 심층적으로 시각화자료를 살펴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꿰뚫는 다양한 데이터 사례 소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전체 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연체의 호흡이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소설이다. 완독이 쉽지 않아 프루스트의 친동생도 다리 하나 정도 부러져야 맘잡고 읽어내려갈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비평가 니콜라스 라고노 Nicolas Ragonneau는 『프루스트그라프: 인포그래피로 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Le Proustographe: Proust et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en infographie』라는 저서를 출판했는데, 이 책에는 소설의 등장인물, 시대적 사건, 많이 쓰이는 단어 등을 시각화한 100여 개의 인포

그래피를 담고 있다. 한 예로, 이 소설에서 가장 짧은 문장은 1단어 “Ah!”로 만들어진 문장이며, 가장 긴 문장은 『소돔과 고모라』 편에 있는 “Sans honneur que précaire, ~ il ne leur paraisse pas un vice.”까지 무려 전체 931단어로 된 문장이다.[5] 학생들에게 이 저서에서 나타난 다양한 시각화자료를 소개해줌으로서 작품 전개를 설명해주었더니 학생들은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

2) 기호(sings) 시간(temps)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프랑스 원서에서 ‘기호.기호들(signe/signes)’이라는 단어가 1권 33회, 2권 19회, 3권 52회, 4권 36회, 5권 22회, 6권 20회, 7권 26회가 등장한다. 철학자 질 들뢰즈는 그 기호들을 사교계의 기호, 사랑의 기호, 감각의 기호, 예술의 기호로 구분한다.[3] 네가지 기호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전체에서 어느 시점에 등장하여 펼쳐지는지 디지털맵핑을 통해 시각화해보는다면 기호들이 서로를 빚추며 공명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네 기호들이 작품 곳곳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도표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디지털화된 지도로 시각화함으로써 작품 전체를 꿰뚫는 다양한 정보들 한눈에 파악한 연구도 가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프루스트의 글쓰기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는 어휘 중의 하나는 아마도 ‘시간(temps)’이라는 어휘일 것이다. 작가 프루스트가 시간을 잃었다가 찾아가는 과정을 따라가기에 ‘시간’이라는 어휘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시간’이라는 주제에 대해 데이터로 접근했던 연구는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에티엔느 브뤼네Etienne Brunet의 1983년 연구는 시간과 관련한 부사, 전치사, 접속사가 어떤 빈도로 등장했는지 연구하여 시간에 대한 프루스트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었다.[2] 하지만 2014년 제프리 드루인의 시간 연구는 ORA의 연상 네트워크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화자의 예술에 대한 소명을 전체 7권을 통해 보여준다.[4] 과거를 돌이키는 개념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구절은 여성에 대한 질투와 관련이 있는 반면, 미래지향적인 환상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구절은 피렌체의 붉은 돔과 베니스의 프레스크로를 상상하는 등 예술과 관련된다.

II. 데이터 분석에 의한 작품 해독의 실제

1. 어휘빈도수 조사를 통한 작품 분석

전공수강생들에게 각 권별 특징을 파악하게 하기 위해 미국의 워드클라우드사이트인 wordclouds.com을 활용하여 어휘빈도수 분석 및 시각화를 시도해보았다. 국내에도 워드 클라우드 제작 사이트가 있지만, 이 사이트는 글자수가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PDF파일을 읽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용량이 큰 PDF파일까지 읽어낼 수 있는 영어판 워드클라우드 사이트인 wordclouds.com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 사이트는 프랑스어의 여러 철자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에게 프랑스어 원문텍스트 분석을 실습시킬 수 있었다.

조동사, 전치사, 그리고 관계사와 같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어휘들은 제외하고 작품의 의미를 살리는 사물, 인물, 장소의 명사들과 감정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형용사, 부사들을 중심으로 어휘빈도를 조사하였다.

어휘빈도수가 높은 상위 50개의 어휘수를 조사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표1>, <표2>)

표 1. 1~4권까지 각 권별 상위 50개 어휘빈도수
 Table 1. Top 50 word frequencies for each volume from 1 to 4

1권	2권	3권	4권
606:Swann	508:moi	812:Guermantes	548:Charlus
283:fois	400:Swann	553:moi	428:Verdurin
263:Odette	410:mme	412:duchesse	324:Albertine
259:temps	388:j'avais	291:fois	286:fois
241:vie	381:encore	282:princesse	278:femme
224:dire	340:chez	278:duc	272:Cambremer
192:faisait	310:mes	267:femme	269:temps
188:toujours	299:fois	264:monde	266:Guermantes
186:moment	293:voir	261:deux	239:deux
184:chose	288:vie	261:Saint-loup	235:Morel
171:Françoise	286:Gilberte	254:vie	227:monde
167:après	263:jour	233:moment	214:gens
165:deux	262:quelque	228:chose	210:moment
160:devant	246:femme	227:temps	204:petit
160:monde	236:temps	211:nom	202:vie
160:n'avait	233:devant	208:Villeparisis	195:Cottard
159:yeux	232:dire	208:yeux	192:l'air
157:autre	224:deux	196:gens	191:princesse
154:tante	222:autre	196:grand'mère	190:jour
153:l'air	218:elles	194:jour	188:nom
149:plaisir	213:moment	190:personne	178:baron
148:femme	196:plaisir	190:tant	178:jeune
139:sous	192:monde	183:grand	169:Balbec

137:mme	190:yeux	182:Robert	169:homme
137:Verdurin	184:chose	165:Françoise	160:yeux
135:petit	183:père	165:votre	155:plaisir
134:Combray	178:toujours	162:homme	147:grand
131:d'odette	177:trop	156:Bloch	145:personne
130:autres	176:gens	153:doute	143:Swann
124:pendant	175:grand'mère	152:monsieur	140:Brichot
123:elles	164:grand	141:dîner	136:assez
123:maintenant	163:Albertine	131:choses	134:parler
122:personne	162:déjà	129:plaisir	134:soir
121:nom	158:personne	128:charlus	130:jours
118:soir	152:Balbec	127:mère	127:seul
113:celui	150:l'air	125:grande	126:maintenant
112:jours	149:jeunes	125:salon	124:venir
111:mmeVerdurin	146:semblait	123:côté	123:air
110:choses	145:beaucoup	121:jours	121:première
107:chaque	145:côté	120:mal	119:mère
107:gens	145:jeune	118:enfin	119:Paris
107:mère	143:chaque	117:fort	118:grande
106:guermantes	143:jours	116:visage	118:puis
106:petite	142:homme	115:Norpois	117:grand-mère
105:cœur	142:pendant	114:air	116:effet
104:eux	139:Bergotte	114:père	116:pendant
104:maison	138:mer	114:Swann	113:mieux
103:fille	137:Bloch	109:Paris	112:entre
101:Gilberte	136:fille	109:parme	112:longtemps
98:Forcheville	132:seul	107:Balbec	111:dîner

148:jeune	96:moment	155:d'ailleurs
147:moment	95:j'étais	155:moment
142:Balbec	95:mère	155:peut-être
141:Vinteuil	89:cœur	146:femme
140:baron	89:Françoise	144:notre
140:yeux	87:entre	141:mort
135:devant	87:jeune	137:homme
133:elles	87:mille	135:toujours
132:pourtant	86:choses	133:Saint-loup
131:après	82:nom	129:deux
130:j'étais	81:elles	125:duchesse
130:l'air	77:avant	124:mes
129:autres	77:pendant	119:nom
129:depuis	76:monde	119:Verdurin
127:maintenant	76:souvent	117:Gilberte
124:Françoise	75:femmes	115:doute
112:grand	75:plaisir	115:jour
109:doute	74:autres	114:personne
109:souvent	73:cause	111:yeux
108:choses	73:côté	105:elles
108:gens	73:voulu	97:assez
106:chambre	72:Andrée	96:Swann
106:petit	72:devant	94:ans
105:fille	72:l'autre	93:passé
104:femmes	70:d'elle	93:presque
104:soir	70:homme	92:déjà
103:plaisir	70:lettre	89:grande
103:qu'Albertine	70:seul	89:reste
100:jours	69:longtemps	87:beaucoup
99:Brichot	69:petite	86:choses
97:seul	69:première	86:Paris
95:Guermantes	69:souffrance	86:plaisir

표 2. 5~7권까지 각 권별 상위 50개 어휘빈도수
Table 2. Top 50 word frequencies for each volume from 5 to 7

5권	6권	7권
507:Albertine	721:Albertine	381:moi
453:mon	229:vie	314:j'avais
335:Charlus	164:mme	308:Guermantes
293:mme	161:chez	306:chez
288:Verdurin	148:femme	305:mon
270:vie	147:Gilberte	304:temps
213:temps	144:Guermantes	276:mme
201:fois	144:jour	209:monde
199:chose	121:personne	202:bien
195:morel	117:amour	194:fois
176:deux	113:Saint-loup	190:tous
171:voir	112:mort	186:gens
168:femme	110:Balbec	181:Charlus
167:toujours	110:doute	165:guerre
166:monde	107:deux	162:chose
158:Albertine	98:fille	158:autre
152:jour	97:désir	156:rien
148:faisait	97:swann	156:étaient

수강생들은 1~7권까지 각 권별로 주요 인물을 파악하고 주요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 및 에피소드를 파악하고, 발표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표1>과 <표2>를 도출했다. 1인칭 소설이므로 작품 전체에 화자가 주된 흐름을 이끌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화자의 주변 인물인 스완과 알베르틴 중에 어느 인물이 작품에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하였다. 1권부터 3권 중반부까지는 스완이 주된 등장인물이지만, 3권 후반부에서부터 7권까지는 주로 알베르틴을 통해 화자의 시선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물론 스완에서 알베르틴으로의 중심인물의 변동에는 게르망트 공작부인을 중심으로 한 귀족과 부르주아 사교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워드클라우드 제작을 통한 작품 흥미유발

어휘빈도수만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다 보면 자칫 수강생들의 관심과 흥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별로 도출된 어휘빈도수를 가지고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어 보는 학습을 유도하였다. 학생들은 접속사, 대명사, 전치사 등을 어휘빈도수에서 제외해가면서 인물과 장소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와 의미를 나타내는 일반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동사를 남겨가면서 이상적인 워드클라우드를 시각화하였다. 워드클라우드에 따르면 각 권별로 주된 등장인물이 1권은 스완과 오데트, 2권은 스완과 질베르트, 3권은 게르망트부인, 4권은 샤를뤼스, 베르뒤랭, 그리고 알베르틴, 5권과 6권은 알베르틴, 7권은 게르망트와 화자 자신으로 드러났다. 각 권마다 주요 등장인물이 크게 달라지면서 작품이 펼쳐지는 주된 장소가 지방과 파리를 오가면서 전개되는 것도 학생들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전7권을 도출해낸 워드 클라우드 중에서 <그림 1>과 <그림 2>는 1권 『스완네 집 쪽으로』와 7권 『되찾은 시간』을 제시해본 것이다.



그림 1. 1권 『스완네 집 쪽으로』 워드클라우드
 Figure 1. Wordcloud of *Du côté de chez Swann*



그림 2. 7권 『되찾은 시간』 워드 클라우드
 Figure 2. Wordcloud of *Le Temps retrouvé*

III.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에 의한
 마르셀 프루스트의 국내외 인지도 분석

1. 구글 북스 엔그램 뷰어를 살펴본 세계 인지도

구글 북스 엔그램 뷰어 Google Books Ngram viewer는 세계에서 1500년부터 2019년까지 디지털화된 약 천만 권의 책에서 키워드를 그래프로 시각화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8개의 언어로 된 도서들이 등장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어 책 서비스는 없는 실정이다.

구글 북스 엔그램 뷰어로 세계의 프랑스어로 쓰인 책에서 검색해보면, 프루스트라는 인물은 1913년 제1권 『스완네 집 쪽으로』가 출판된 이후에 점차 등장하게 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대부터 프랑스어책들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그림3> 참조) 반면에 영어로 쓰인 세계의 책에서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프루스트가 등장한다.<그림4> 참조) 프루스트는 프랑스에서는 1920년대부터 인지도가 생겼지만,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형성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영미권에서는 프랑스에 비해 상당히 늦게 인지도가 생겼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미권에서 프랑스 작가인 프루스트의 진가를 확인하는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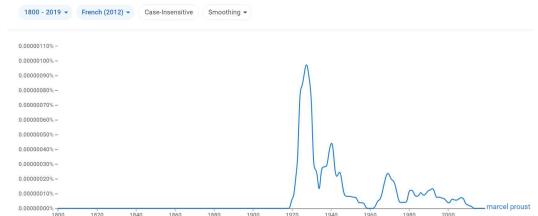


그림 3. 구글 엔그램 뷰어 프랑스어 버전의 ‘프루스트’ 검색 결과
 Figure 3. Proust search results of the French version of Google Engram Viewer



그림 4. 구글엔그램 뷰어 영어 버전의 ‘프루스트’ 검색 결과
 Figure 4. Proust search results of the English version of Google Engram Viewer

2. 텍스트TEXTOM을 활용한 국내 포털 및 SNS의 인지도 분석

텍스트Textom(www.textom.co.kr)은 프리웨어이면서도 코딩 없이도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인문학 학생들에게 호의적인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학생들에게 텍스트에서 국내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네이버Naver, 구글 코리아Google Korea, 줌Zum과 같은 포털사이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사이트에서 '프루스트'라는 어휘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텍스트는 단 한 번의 상세검색을 통해 2013년에서 2023년까지의 웹사이트 및 SNS를 전체 분석해주기 때문에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10년간 프루스트에 대한 인식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작품에 대한 접근보다는 주인공 화자의 마들렌 체험에 영감을 받아 제작한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 영향을 받았다. 대중의 프루스트에 대한 접근 방법은 소설보다는 영화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영화가 아닌 전체 13권으로 번역된 완역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해서는 대중의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강생들은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과정 속에서 프루스트라는 작가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인지도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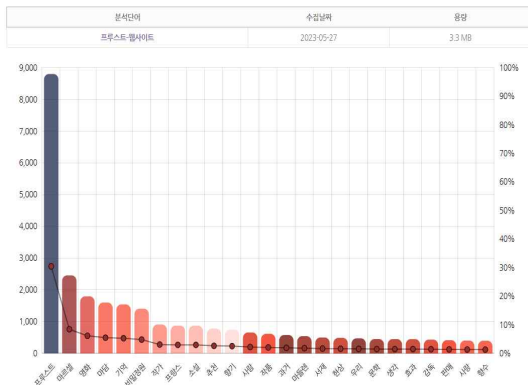


그림 5. 지난 10년간 포털 및 SNS에서 텍스트의 프루스트 관련 어휘들
Figure 5. Korea society's recognition of Textom concerning proust for last 10 years



그림 6. 지난 10여년간 텍스트에서 포털사이트와 SNS에 나타난 프루스트 관련 어휘 등장 빈도
Figure 6. Frequency of appearances in portal site and SNS of Textom for last 10 years

<그림5>와 <그림6>은 프루스트가 어떤 어휘들과 함께 등장하는지 텍스트가 분석해낸 결과이다. 학생들의 분석에 따르면 마르셀 프루스트를 제외하면 영화, 마담, 기억, 비밀정원과 같은 어휘들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프루스트의 소설 자체에 대한 국내의 인지도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에서는 국내에서 프루스트에 대한 감성분석의 결과이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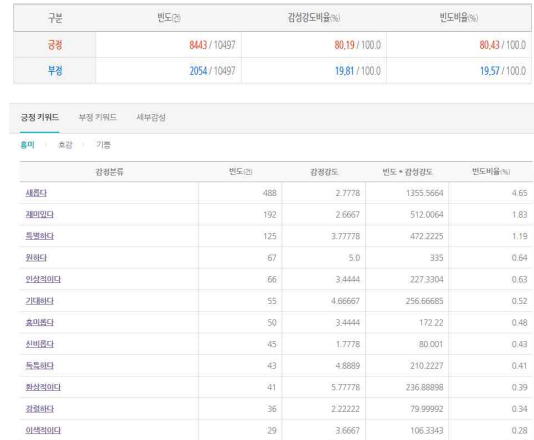


그림 7. 작가 프루스트에 대한 감성 분석 및 흥미 위주의 긍정 키워드
Figure 7. Sentimental analysis of artist Proust and positive keywords focused on interest

3.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한 언론 인지도 분석

빅카인즈는 국내 언론 기사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지난 30년간 프루스트가 국내 언론에 많이 등장했

던 시기는 번역본이 출간되었을 때, 관련된 영화가 출시되었을 때, 그리고 프루스트가 자신의 글쓰기에 많이 영향을 주었다고 고백한 여러 거장들의 인터뷰가 실렸을 때였다. 한국이 프랑스나 영미권과 다른 점은 프루스트연구자들이 적어서 프루스트와 관련된 심층적인 연구물들이 출판되었을 때에는 언론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8>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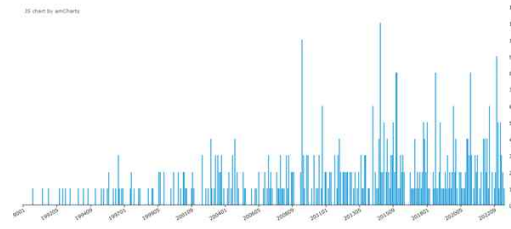


그림 8. 1990~2010 프루스트에 관한 언론 기사 키워드 트렌드
 Figure 8. Keyword Trend based on articles regarding Proust in recent 30 years

빅카인즈의 키워드 트렌트와 관계도 분석을 좀 더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관이 분석을 보여주는 워드클라우드를 실행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9. 지난 30여년 프루스트에 관한 언론 기사 워드클라우드
 Figure 9. Wordcloud based on articles regarding Proust in 2023

<그림9>에 따르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프란츠 카프카의 장단편소설들과 함께 20세기의 주요한 문학비평에 자주 인용되었다. 또한 한국 언론에서는 『스완네 집 쪽으로』에 등장했던 마들렌과 홍차 일화에 가장 주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 론

아무리 프랑스문학 전공 수강생들이어도 난해하다고 널리 알려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타난 프

루스트의 문체는 상당히 어렵다. 학생들에게 작품 전체를 조망하면서 꼼꼼한 독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디지털 인문학적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사용해보는 것은 강의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어휘들이나 등장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해, 혹은 작품 속 화자의 기억 속 시간들을 잘 정리한 시각자료를 도출해냈을 때 학생들은 작품 이해가 더 편해졌다고 평가했다. 워드클라우드, 텍스트, 구글 북스 엔그램 뷰어, 빅카인즈와 같이 코딩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해주는 도구들은 수강생들에게 거부감이 적다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 디지털전환 시가라고 명명하는 지금, 고전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디지털인문학의 빅데이터 분석 도구는 유용한 도구임이 확실하다.

References

- [1] Proust, Marcel,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édition publiée sous la direction de Jean-Yves Tadié, 4 tomes, Paris, Gallimard, 1987-1989.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김희영 옮김, 전13권, 서울, 민음사, 2012-2023.
- [2] Brunet, Etienne, *Le vocabulaire de Proust*, Slatkine, 1983.
- [3] Deleuze, Gilles, *Proust et les signes*, 1971,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 역, 민음사, 2004.
- [4] Drouin, Jeffrey, Iconoclastic Textuality: The Ecclesiastical Proust Archive, *Textual Cultures*, Vol.9, No.1, Indiana University Press; 2014, pp. 22-39 URL: <https://www.jstor.org/stable/10.2307/26500710>
- [5] Ragonneau, Nicolas, *Le Proustographe: Proust et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en infographie*, Denoël, 2021
- [6] Van de Ven, Inge, The Monumental Knausgård: Big Data, Quantified Self, and Proust for the Facebook Generation, *Narrative*,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Volume 26, Number 3, 2018.10, pp. 320-338 10.1353/nar.2018.0016